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이태호 시민감시국 부국장 : 723-5302)
제 목 의정부 수뢰 판사 기소유예에 대한 항고장 접수의 건
날 짜 1998 . 10. 12. (총 2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의정부 수뢰판사 기소유예에 대해 항고장 접수

일시 및 장소 : 1998년 10월12일 오전 11시 서울지검

1.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종배, 박상증)는 1998년 10월 12일(월) 오전 11시, 의정부 수뢰판사에 대한 서울지검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항고하는 항고장을 서울고등검찰청에 접수한다.
2. 참여연대는 사법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사법개혁과 사법정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월 24일 사법감시센터는 의정부 지원의 수뢰 판사 6인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시킨 바 있고 이에 서울지검(담당 민유태 검사)는 1998년 9월 11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9월 14일 참여연대에 통지서를 송부해 왔다.
3. 지난 2월 참여연대에 의해 고발된 비리판사는 김차동, 정병권, 임영일, 오승원, 진광엽(이상 서울지법 의정부 지원 판사), 서규영(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등 6인이며 고발인은 심병호, 이재순, 김형완(이상 참여연대 회원) 3인이다.
4. 이번 항고는 법을 다루는 사법기관에 대한 법의 집행이 더욱 엄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 초유의 징계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기상천외한 조치를 취하면서까지 봐주기식 수사를 해온 검찰에 보다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고 법조계 전반의 자성과 개혁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닌다.

※참고자료 : 항고장(98.10.11), 고발장(98.2.24일)

항 고 장

사 건 98형제21309 뇌물수수
피의자 정병권
김차동
오승원
진광엽
임병일
서규영
고발인 김형완
심병호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민유태는 피의자에 대하여
1998. 9. 14. 자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고발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이 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사건처분결과통지 1통

1998. 10. 12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85의 87
안국빌딩 (참여연대)
항고인 심병호
김형완

불기소이유고지청구서

사 건 98형제21309 뇌물수수

피의자 정병권

김차동

오승원

진광엽

임병일

서규영

위 사건에 관하여 검사 민유태는 1998. 9. 14. 자료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고발인은 그 이유를 알고자 하므로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 10. 12.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87

고소인 심병호

김형완

서울지방검찰청

귀중